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포 2025. 10. 22.(수) 13:00

“한식 세계화 위해 지혜 모으자”...동포청 차장, 글로벌 한식포럼서 강조

- 변철환 차장, 22일 전남 목포서 열린 세계한식총연합회 주최 행사 참석
- 각국 한식당 관계자들과 소통...“한식, 세계인 향유하는 자산으로 확산해야”

-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은 22일 세계한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‘글로벌 한식 포럼’에 참석해 “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식을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”고 제안했다.
- 전세계 20개국 32개 지부에 2,200여 명의 회원을 둔 세계한식총연합회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‘2025 글로벌 한식포럼’을 개최했다.
- 변 차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해 재외동포 한식당 관계자들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포럼에는 고국을 방문한 100여 명의 한식 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들은 물론, 전라남도·농협·세계김치연구소·식품·물류회사 등 국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.

○ 이날 환영사에서 변 차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주요 문화 자산인 K-Food의 세계화를 위해 동포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이날 부대행사로 한국 유망 식품 제조업체와 해외 한식당 간의 식자료 공동구매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K-FOOD(농식품) 전시장이 열려 성황을 이뤘다. 끝.

담당	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경아	(032)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	박용준	(032)585-3297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